

광주시·전남도, 미래 성장동력 새판 짚는다

민선 8기 방향타 첫 조직개편 촉각 시, 핵심 '신경제지도' 주도 재편도, 반도체 등 성장동력 마련 방점 정부 동향따라 부서 통폐합 불가피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 남도가 조만간 단행할 조직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신경제 지도 완성 등 미래산업을 주도할 전담조직 신설

이 논의되고 있고, 전남도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 마련에 중점을 둔 대대적 새판짜기가 예상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본청 4실 8국 2본부 73과 284팀에 대한 조직개편 초안이 강 시장의 결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시와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핵심 기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왔다.

강 시장이 5개 자치구별 신산업지구(동구 첨단 의료문화, 서구 마이스·환경, 남구 차세대 배터리·스마트 그리드, 북구 반도체·인공지능, 광산구 자율주행·반도체)로 나눈 '광주 신경제지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인공지능(AI),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의 업무를 수행할 관련 부서 신설이 유력하다.

해당 전략 산업들은 민선 7기 조직 구성에서는 인공지능산업국이 담당했던 현안으로 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남도와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전담 기구 신설도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수위와 논의한 조직개편 초안을 이번 주 내로 시장님께 보고드릴 예정이다"며 "큰 변수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 협의와 시의회 의결을 통해 내달 1일 자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규모가 축소되거나 통폐합 가능성도 있다.

민선 7기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경우 내부에서도 존치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전남과 상생 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담보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군공항이전 추진본부의 축소·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맞물린 여성가족국 과 2020년 5월 신설된 인사정책관실의 존폐나 기능 분산 여부도 주목된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과 관련 이날 오전 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대로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이 조직개편이다"며 "여성가족부와 같이 정부 부처 조직개편과 맞물린 부서는 정부 방향을 보면서 개편을 진행해야 하고, 나머지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의 초점은 전략산업 관련 팀 단위 부서 신설과 임시로 운영됐던 TF(태스크포스) 성질의 부서를 정식 직제로 편입하는 것에 맞춰졌다.

오는 9-10월 예정된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 조직 역시 상당 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선 8기 임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은 손볼 계획이다.

우선, 전남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팀 단위 부서를 신설한다. 현재 고려 중인 부서는 전략산업국에 소속될 반도체산업팀, 에너지산업국에 들어갈 레이저산업팀, 관광문화체육국 직제의 콘텐츠산업팀 등이다. ▶2면에 계속 /길용현·오선우 기자



4일 오후 민선 8기 첫 행보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과 함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구 기자

상생협회의 위원들과 간담회, 생산현장 투어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 시장은 "정부와 광주시가 노동자 여러분과 맺었던 약속, 그 사회적 합의 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사회적 합의를 지켰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복지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 20만원에 대해 노사민정교협의해 대상과 액수를 더욱 넓히겠다"며 "현재 일자리 연계형 주택 건립과 관련해 국토부 심사 중인 만큼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한 장학금, 체육·문화활동, 건강검진비 등으로 활용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겠다"며 "주거비 국비 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4가지 사항을 다짐했다.

강 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현장에 오기 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선도기술지원센터와 부품인증센터를 둘러보면서 GGM의 올해 5만대 생산 목표를 10만대로 늘리고, 동시에 질을 높여 친환경자동차 인프라와 연계한 관련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후반기 국회의장 김진표 부의장에 김영주·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5면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부의장에는 4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 부의장은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의부이다. 정 부의장은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데 이어 오는 12월 31일까지 부의장을 맡는다. /서울=강병운 기자

INSIDE NEWS

- 전남개발공사 8대 사장 인선 촉각 ▶3면
- 기획/김철우 보성군수 ▶11면
- KBO 올스타 양현종 최다 득표 ▶14면

강 시장 "GGM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 실현"

주거·복지지원 확대 등 약속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을 방문해 주거·복지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시장은 4일 민선8기 첫 외부 일정으로 GGM,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선도기술지원센터,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등 자동차산업현

장을 방문했다.

GGM을 방문한 강 시장은 박병규 광산구청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등과 함께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전남매일 창간 33주년

전남매일 창간33주년을 축하합니다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과 동행하겠습니다

LOVE HOUSE

중간소음 에어블럭 (BO-30)

보온 에어단열재 (BO-30A / BO-30B)

2개의 공기층으로 중간 소음이 방지되는 혁신적인 단열기술!
3개의 공기층으로 방음 효율을 높이는 기술!!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 : 24267332

대표이사
김홍연

(주)한일파이프 (주)한일보온 www.보온.com

TEL 062.365.5577~8 FAX 062.365.558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1 광주광역시 서구 미륵로 16

E-mail : hanil5577@naver.com